

# 공연愛 빠져 울다가 웃다가



역사적 고개 너릿재의 사연을 무대화한 푸른연극마을의 '너릿재 연가'. <광주문화재단 제공>

## 광주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26일까지 빛고을문화관 등

계절은 어느새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 와 있다. 한 주만 지나면 올해도 12월 달력 한 장만 남게 된다. 웃을 일도 울 일도 많았던 시간이었지만, 이번 주말에는 모든 시름 잊고 공연의 매력에 빠져보자.

광주지역 공연장 상주단체들의 축제 '2017 광주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이 26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연극, 퓨전국악, 발레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페스티벌 주제는 '웃다·울다 공연愛 빠지다'. 광주상주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한다.

로맨틱 코미디 '더 비기닝'은 24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아트컴퍼니원'이 제작한 '더 비기닝'은 가난한 집안 형편을 극복하고자 사업에 손을 댔지만 실패 후 애인과 관계도 틀어진 남자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다. 문의 010-4745-7141.

### 그린발레단·푸른연극마을...

### 창작발레·연극 '너릿재 연가'

### 대구 '풍류 21' 퓨전음악 공연

25일 오후 4시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대구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 9월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빛고을시민문화관 상주단체 '푸른연극마을'이 '마당창극, 청아, 청아!' 공연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대구 아양아트센터 상주단체 '풍류 21'이 퓨전음악을 선보인다. 문의 062-670-7446.

발레와 미디어아트가 함께하는 공연도 예정돼 있다. 광산문화예술회관의 상주단체 '그린발레단'은 25일 오후 5시 창작 발레 '항해 II'(Voyage)를 무대에 올린다. 원시시대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모습과 우

주를 발레와 미디어아트로 풀어냈으며 안무에 박경숙 씨가 맡고 진시영 미디어아티스트의 작품이 함께한다. 문의 062-960-8989.

페스티벌 피날레는 푸른연극마을의 '너릿재 연가'가 장식한다. 26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상연되며, 풍파 많은 역사적 고개 너릿재 사연을 무대화했다. 극단 대표 오성환 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뮤지컬적 요소와 연극적 요소를 결합했다. 텔런트 전원주가 특별출연하며 한중곤, 이담금, 이현기, 김안순 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10-2877-4403.

한편 이에 앞서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스위트 콘서트', 극단 유피어터 창작 뮤지컬 '시작하는 여자, 끝내주는 남자', 선율의 '아르스 필하모니'와 함께한 김태연의 클래식여행 '낭만을 즐기다',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의 '영화음악, 재즈보컬과 함께하는 팝스 콘서트' 등이 펼쳐져 큰 호응을 받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호남춤의 대부' 송준영 선생 추모공연

### 광주한국춤연구회 28일 문예회관 소극장

호남춤의 대부로 불리는 남재(南齋) 송준영(사진) 선생 추모공연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한국춤연구회는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송준영 선생 추모공연을 선보인다.

1936년 고흥에서 태어난 남재 선생은 중학교 때 춤에 입문해 이복래 선생께 춤을 사사받았다. 집안의 반대로 성균관대 국문과에 입학해서도 춤을 놓지 못한 선생은 송범 무용연구소에서 현대무용 등을 접했으며 1971년 대학 졸업 후 부산에 춤연구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1974년 조선대 무용과 교수로 부임해

'열녀운'(1982년) '바다는 울고 있더라'(1983년) '마리네 가시버시'(1990년) '소쇄원48영'(2002년) 등을 안무했다. 2010년 광주한국춤연구회를 결성한 그는 '살풀이춤' '한량무' '훈령무' 등을 주로 선보였으며 지난해 8월 별세했다.

'일생을 춤으로 살았노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남재 선생의 '한량무'를 선보인다. 또 부산 무형문화재 14호 동래한량춤 예능보유자 김진홍 선생과 전북 무형문화재 59호 신관철 선생이 특별 출연해 각각 '허튼춤'과 '수건춤'을 공연하며 '진도 씻김굿'과 '춤추는 북' 공연도 만날 수 있다. /전은제기자 e16621@kwangju.co.kr



고(故) 송준영

## 화폭 한가득 꽃들의 향연... 오수경 개인전

### 30일까지 ACC 디자인 호텔

캔버스에 만발한 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밝은 기운이 전해진다. 화려한 이미지와 강렬한 색채의 다채로운 꽃들은 작가의 붓을 거친 후 또 다른 형태로 색깔으로 변형돼 감성을 자극한다. 특히 대형 꽃그림들은 넓은 전시 공간(ACC 디자인 호텔 1층 갤러리)과 잘 어울리지며 웅장한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서양화가 오수경 개인전이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작 대부분은 꽃그림이다. 국화, 부채꽃 등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은 화사함과 다양한 색채의 향연으로 관람객들을 안내한다. 단순화시킨 산과 하늘, 그리고 하얀 꽃이 어우러진 '독도', 붉은 꽃과 푸른 이파리가 촘촘히 박혀 강한 이미지를 전하는 '부림', 나무 아래 서면 살랑살랑 바람이 불 것같은 '시원한 나무그늘' 등의 작품이 눈에 띈다. 또 붉은 빛깔을 강조한 '정물' 시리즈도 인상적이다. 꽃을 그리고 싶다면 즐겁다고 말하는



'부채꽃'

작가는 "꽃은 나의 화폭에서 단순화된 형태와 채색을 통해 또 다른 이미지로 창작돼 나에게 기운을 준다. 나의 꽃은 창작의 번뇌와 고통에서 위로와 안식을 주는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소재"라고 밝힌다. 이화여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

한 오씨는 지금까지 6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회화와 화합의 한 일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이화여대, 전남대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채림회원, 이서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234-8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서양화가 임근재 개인전

### 30일까지 갤러리 리체

### 12월 1~8일 화순 소소미술관



'나의 노래'

서양화가 임근재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갤러리 리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의 노래' 연작이 선보인다. 작가가 즐겨 작업하는 나팔꽃이 포인트로 등장하는 '나의 노래' 시리즈는 때론 화사한 장미와, 때론 독자적인 울음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또 화사한 매화와 어우러진 여인의 모습도 눈길을 붙잡는다. 꽃그늘 아래 대금을 부는 여인은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듯하다. 1년 12달 각각에 어울리는 꽃과 나무, 풍경을 소재로 작업한 수채화 연작은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 돋보인다. 노란 꽃수술을 드러내며 활짝핀 동백과 이제 막 봉우리를 머금은 동백이 어우러진 '2월', 화사한 빛깔 아래 앓은 연인들의 밀어붙이기 같은 '4월', 커다란 그늘을 드리운 당산도 보호수가 담긴 '6월'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다양한 꽃이 눈을 즐겁게 하는 '7월', 경쾌한 나팔꽃을 만날 수 있는 '8월' 등이다. 전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화순 소소미술관에서 계속된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임작가는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전남도미술대전·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광주시전 운영위원, 광주시전·전남도전 초대작가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412-00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장애인·비장애인 50명 공예작품 선보여

### 전통공예문화연구회전...29일까지 담양 남촌미술관

제11회 전통공예문화연구회(회장 김미선) 회원전이 오는 29일까지 담양 남촌미술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사업'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꿈'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는 김효순, 김영희, 나은희, 김

미경 등 모두 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한지를 접착풀과 섞고 이겨서 작품을 만드는 전통적인 지호 공예(紙糊工) 작품과 함께 지호 공예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평면 작품들이 눈에 띈다. 그밖에 조각보 등 섬유공예, 한지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1-381-43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미선 작 '그리운 엄마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증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